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호 【루게 제2298호】주제99(2010)년 2월 2일(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고있는 우리 조국땅에 뜻깊은 2월이 왔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백전백승의 선군혁명령도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고 우리 조국의 앞길에 끝없이 찬란한 미래를 열어주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호모의 정에 넘쳐있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강성대국승리의 날을 앞당겨 줄라라는 맹세를 굳게 다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고 우리 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더욱 애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는 곧 선군의 력사이며 그 갈피마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찬연히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반세기 전에 걸치는 혁명령도의 나날이 어버이수령님의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여 우리 혁명과 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셨다. 총애자이 혁명이 사회주의승리이며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선군의 원리를 밝혀주시고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구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총대로 시작된 우리 혁명의 전통이 굳건히 계승되고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 위업을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끄떡없이 전진하여왔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50성상에 걸쳐 이룩하신 선군혁명령도의 위대한 업적은 김일성민족의 가장 고

귀한 재부이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마련된 강력한 정치군사적위력이 있었기에 지난해 반란민족사에 처음보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질수 있었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전두에 모시고 선군의 길을 따라 통성변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며 크나큰 자랑이다.

우리 당의 선군령도업적은 나라의 자주적존엄과 불패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치게 하는 백승의 기치이다.

나라의 자주적존엄과 위력은 강력한 군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일제기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유격부대 제105방크사단에 대한 현지지도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대를 강화발전시키는데 최대의 심혈을 기울여오셨다. 전군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군대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됨으로써 그 어떤 정세추변에서도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혁명을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강력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앞에 최약의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에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리하신것은 선군의 기치밑에 주체혁명위업을 완수하시려는 드립없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강적도 타도할수 있는 무적불승의 혁명군대로 자라

나고 우리 국방공업의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게 되었으며 온 사회에 총대중시, 군사중시기풍이 차넘쳐 우리 조국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게 되었다. 선군의 기치밑에 다져진 강력한 자위적군사력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 우리는 한탄대적이 덤벼들어오지 못하며 자기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혁명과 건설을 우리의 사상과 신념에 따라 우리 식으로 해나가고있다. 탁월한 선군령도로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군사적진지를 필승불패의 보루로 다져조국의 번영과 주체혁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하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최대의 공적이다.

우리 당의 선군령도업적은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철통같이 뚫힌 일심단결의 위력을 전백배로 강화하게 하는 고귀한 재부이다.

단결은 혁명의 최강의 무기이며 모든 승리의 근본원천이다. 오늘 우리 조국이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일심단결의 나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우리 혁명대오의 정예화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사상정신적품도를 혁명군대의 승고한 높이로 끌어올려 우리 혁명대오를 인민군대와 같이 정예화되고 강군화된 불패의 대오로 다지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여오셨다. 인민군대가 무적의 사상과 위업을 받드는데서 기수가 되고 사회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시고 전체 인민이 인민군대를 적극 따라배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

한 령도밑에 혁명적군정선이 전인민적인 사상강점으로 승화되고 군민단결이 굳건히 다져지게 되었으며 우리 일심단결은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에 기초한 전당, 전군, 전민의 일심단결로 공고발전되게 되었다.

수령사상위정선에 기초하여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사상상의지적통일체, 군대와 인민이 사상도 투쟁기풍도 하나가 된 동지의 세계, 이것이 우리 일심단결의 참모습이다. 선군의 기치밑에 천백배로 다져진 일심단결은 오늘 선군조선의 모든 승리와 기적의 근본원천으로, 장엄한 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떠밀어나가는 기본추동력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의 선군령도업적은 천만민족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대혁신을 일으켜나가는 비약의 보금이다.

우리의 대고조력에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시대의 앞장서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창조하여온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적 위훈이 아로새겨져있다.

혁명령도의 시간간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도적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준엄하였던 지난 10여년간에도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화를 북으려, 역경을 순경으로 전철시키시며 때때로 세기적전변을 안아오셨다. 우리 조국땅우에 대내외 대고조시대, 강성대국건설의 빛나는 전진기가 펼쳐지게 된것은 언제나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워 그 위력으로 난국을 뚫고 혁명적전환을 일

으켜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지금 우리 조국땅우에는 강성대국으로 비약하는 우람한 발구름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고있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천만민족의 정신력이 활화산처럼 분출되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사면들이 연이어 일어나 인민의 모든 리상이 실현되는 찬란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우리 인민은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의 길은 곧 백전백승의 길이며 그 길에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이 있다는 신념을 더욱 심장깊이 새기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록하신 선군혁명령도업적이야말로 김일성민족의 가장 고귀한 재부이며 강성대국건설과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기치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불세출의 선군령도를 모신 크나큰 민족적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는 선군령도따라 오늘의 대고조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한다.

수령사상위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선군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희망찬하며 대고조의 승리는 확정적이며는 철결같은 신념을 간직하고 이념 역경속에서도 장군님을 한 목소리바쳐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신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영웅적위훈과 높은 사업실적을 불분별불휴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장군님의 대고조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전당, 전군, 온 사회에 혁명의 수뇌부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같이 움직이는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체득하여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불패성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간직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관, 인생관을 적극 따르며 배우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대고조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여나가야 한다. 군대와 인민이 서로 돕고 이끌어갈 단결된 힘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투장면마다에서 시대를 격동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동전선을 지켜신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올해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선형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는 높은 생산성향상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첨단기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끊임없이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히 다져나가야 한다.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대고조진군에 박차를 가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희천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과 창조본래를 적극 따르며 배우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대고조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여나가야 한다. 군대와 인민이 서로 돕고 이끌어갈 단결된 힘으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투장면마다에서 시대를 격동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위훈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동전선을 지켜신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올해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선형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는 높은 생산성향상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첨단기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끊임없이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이룩된 자랑찬 로력적성과

기세드높이 전진하는 대야금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1월 선철, 강철, 압연강재생산계획 넘쳐 수행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전국의 근로자들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맹세한대로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련합기업소에서는 1월 선철, 강철, 압연강재생산계획을 넘나치게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부엌보다도 철강재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하겠습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해 12월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신고 강선의 불화를 김책철의 불길로 이어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생산자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생산현장들에서 나가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당원들과 로동자들에게 다시금 해설해주고 모두가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진 맹세대로 나라의 만아들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집중적인 선전선동공세를 벌리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의 일군들은 철강재생산목표를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실리가 나게 짜고들었다. 일군들은 력량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걸린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갔다. 해관장정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로들의 기술관리를 잘하고 여러가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에서 이어나게 하였다. 2호해관로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로의 온도를 잘 보장하고 로조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였다. 소결광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는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광물생산에서 일대 혁신 해산 청년광산에서

두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광산의 일군들은 높이 세운 광물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면서 대담하게 작전하고 롱이 크게 일판을 벌리었다. 광산의 일군들은 올해에 생산장기전공사를 다그치고 경제 운반체통을 완비합

2호용광로의 용해공들이 당장전 65톤을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한마음안고 혁신의 불길을 높여왔다. 이들은 연로, 원로조건에 맞게 로판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용해시간을 줄이면서 지난해 시기보다 많은 량의 쇠물을 쏟아내었다. 산소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는 설비보수와 정비를 책임적으로 하고 정련공정에 필요한 산소공급을 정상화하여 철강재생산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여나가는데 이바지하였다. 원로와 자체보장을 맡은 단위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이러에 모시는 영광을 지녔던 강철2조직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로들의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출장회수를 늘여 많은 쇠물을 쏟아내었고 함께 조끼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광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었다. 열간압연조직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가열로와 만능압연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기술관리를 힘써 맡으면서 련속가열과 련속압연을 진행하여 압연강재생산에서 높은 질을 기록하였다. 원로와 자체보장을 맡은 단위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은 벨트콘베어를 비롯한 설비들을 능률적으로 개조하고 그 수명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는데 기초하여 가동률을 높여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장엄한 올해의 대고조전투의 앞장에서 소리치며 내달리고있는 김책의 로동계급은 첫달 전투목표를 넘나치게 넘쳐 수행한 기세드높이 혁신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성호



잡고 련속전공, 련속발과를 틀어미더 기세총계 달려나갔다. 이들은 광물생산의 모든 공정들을 치차와 같이 맞물려 나가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수행하였다. 혁신경의 엄중들도 부닥치는 예로와 난관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면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나갔다. 광산에서는 1월계획을 수행한 기세로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축산물생산을 훨씬 늘인다

현대화된 각지 축산기지들에서

현대화된 축산기지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1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성과는 올해공공사업과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호소를 피하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이들이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 몸이라는 시대적책임감을 간직하고 중산물적투쟁을 힘있게 벌린 결과에 이룩한 자랑찬 열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디다.》

수리의 심심에 넘쳐 분발해나선 축산부문의 일군들은 축산물생산을 과학화, 집약화하여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할 높은 목표밑에 대중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각 도당위원회들에서는 도안의 현대화된 축산기지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한마음안고 애국적열정과 창조적적성을 높이 발휘하여 축산물생산성과를 높여나가는 정치적사업으로 어느때보다 진공적으로 벌리었다. 현대화된 각지 돼지공장들이 총공격적인 기세가 세계로 나빠졌다. 강계돼지공장에서는 비육후동을 새롭게 일신하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높임으로써 1월 돼지고기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혁신성과를 거두었다. 사리원돼지공장, 평북돼지공장, 함주돼지공장에서는 과학적인 종축생산체계를 세우고 우량품종의 새끼돼지생산을 늘여 고기생산의 좋은 전방을 열어놓음으로써 돼지고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지금 각지 현대화된 돼지공장, 닭공장, 오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축산물생산성과를 높이기 위해 계속 혁신의 불길을 높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사리원닭공장에서는 우량품종의 닭애에 대한 사양관리를 과학화하여 육성률과 증계율을 중점보다 높이면서 질 좋은 단백이끼를 자체로 생산사용함으로써 닭고기, 닭알생산실적을 높여왔다. 신의주, 구성닭공장에서도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고기생산의 수의방역체계를 철저히 세움으로써 첫달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광포오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공장굴지의 오리고기생산기지로 전면시켜주신 백두산인민들의 불멸의 령도명령을 중산성과로 빛내일 총성의 한마음을 안고 힘찬 전투를 벌려 올리고있는 김책철의 불길로 이어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업소앞에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산판마다 내려치는 비약의 기상

각지 립산, 광목생산사업소들에서

공공사업에서 제시된 전투과업들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각지 립산, 광목생산사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총공세의 불길높이 첫달전투를 힘있게 벌려 1월 산지총나무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혁신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산림자원은 나라의 만년대대의 귀중한 재부이며 오늘날 목재생산을 높이는것은 인민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입니다.》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통나무를 생산하여 대고조전투장들에 보내줄 높은 목표를 세운 립산사업소 일군들은 각지 립산, 광목생산사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기계톱을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며 한때의 나무라도 질적으로

로써 제때에 운반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강원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은 앞선 단위들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면서 모든 사업소들에서 증산성과를 더욱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이에 맞게 관고, 천해, 통천림산사업소 로동자, 기술자들은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앞선 작업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많은 통나무를 더 생산하는 자랑을 떨치었다. 평안남도림업관리국과 함경남도림업관리국에 립산, 광목생산사업소의 로동계급이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었다. 유평, 동서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힘있게 완수할 기세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었다. 강계, 고인, 통림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기계톱을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며 한때의 나무라도 질적으로

천출위인일 높이 모시여 태양민족의 영광 강산에 넘친다

선군조선의 영원한 승리를 불러오는 환희의 2월

위대한 어머니당을 위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훈을 창조하기 위해 천만군민이 혁명적대진군을 파카히 벌려나가고있는 내 조국땅에 승리의 2월, 환희의 2월이 왔다.

김일성민족의 천만년미래와 잇닿아있는 뜻깊은 2월! 민족대통운의 2월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명복, 장군복으로 하여 해돋는 바다마냥 설레이고있다.

선군조선의 태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

으로 불태우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에서는 이런 격정의 웨침이 끝없이 울리고있다.

절세의 애국자, 천하제일 선군명장, 로명한 정치원로로 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

장군님 계시어 조선은 영원하며 김일성민족의 후손만대의 번영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 있는 령도력과 품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질은 어둠을 밀어내며 새날을 부르는 해님파도 같이, 사나운 거울을 밀어내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불과 같이 끝없이 밝고 따듯하고 자애로운 위대한 태양의 품, 시간이 흐르면 모든것이 변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태양의 빛과 열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줄지도 약해지지도 않는다.

은 민족을 우주와 같은 넓은 품에 안으시고 태양과 같은 인력으로 천만군민을 어버이수령님의 리상

실현의 길,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한길로 즐거히 이끌어가는 회세의 선군명장 김정일동지!

탄생 부리가 비범하신 그이시이다.

은백색의 눈썹이 끝없이 쏟아져내리는 백두밀림, 하얀 눈이 지붕을 소복이 덮은 귀촌집에서 2월의 그날 승리의 봄을 안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탄생하시였다.

력사의 대통운을 만방에 알리는 듯 백두산악도 찬란한 은빛세계를 장엄히 펼쳐였다. 모든것을 송두리채 날려보낼 듯 기세를 부리던 북방의 눈보라도 그 시간만큼 잠잠해지고 세계적위인의 탄생을



백두령장을 우러르는 만민의 환호성 끝없이 메아리친다.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에서— 본사기자 리원국 찍음

하늘도 축복하는가 우리 나라의 전역이 함께 개이고 온화해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얼마나 신기한가.

승연한 봄정기가 정일봉을 휩싸안던 력사의 그날 백두밀림에 메아리치던 항일혁명투사들의 격정과 환희의 목소리가 금시라도 들려오는듯싶은 2월이다.

《아 백두광명성 탄생을 알린다.》《동포여 보느냐 듣느냐 백두산에 김대장 뜻 이을 광명성 솟았다.》《3천리강산에 밝은 빛 부리며 솟아난 백두광명성 만세!》

우리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안고 탄생하신 절세의 위인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애국의 감정은 이렇듯 뿌리깊은것이다.

민족의 그 녀름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해쳐오신 혁명의 수실성상은 철두철미 어버이수령님께서 백두에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계승완성하고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무궁조국의 희한한 현실을 안아오시기 위해 불멸불휴의 불멸산식강행군을 이어오신 영웅사시적인 투쟁행로로 빛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한성어 이런 사랑하는 조국을 영원한 사회주의 보루로 빛내이시기 위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더욱 높이 추켜드신 위대한 선군의 기치!

선군이 조국수호의 필승의 보검이기에 아무리 비탄 대가를 치른다 해도, 피어린 시면이 중중첩첩 가로막는다 해도 꽃같이 선군의 한길로만 력사의 기판자를 돌아오신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 이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0년전 영광의 그날이 추억깊이 들어켜진다.

주제 49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제 105명사단에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찍으신 그날에 벌써 주체혁명위성의 영원한 백송의 길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영원히 수령적사용위 한길로!

력사의 그날 온 세상에 소리를 선언하신 위대한 선군명장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오늘날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심장마다에 신념의 메아리로 힘있게 고동치고있다.

당장진 65돛을 맞는 뜻깊은 올해의 정초부리 천리방선초소들에 수놓아지는 회세의 선군명장의 거룩한 자욱을 삼가 더듬어보자.

지난 1월 초순의 어느날 눈덮인 인명길을 넘어오시어 오종흥 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군위 서울류경수제 105명사단관하 구본대를 찾오시고 인민군인들에게 일당백의 용용을 안겨주시던 이어 마감에는 조선인민군 특혜공공합동훈련을 보시면서 전투력강화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근엄하신 모습.

적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한치의 땅이라도 감히 건드린다면 다지고다저는 무적의 군력으로 침략자들을 단애에 짓밟아버리고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사수할 열의의 투지에 넘친 인민군인들의 가슴후련한 훈련을 보시며 백전백승의 명활한 전법과 지략을 펼쳐주시는 백두명장 김정일동지.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신 그이의 모습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대한 기치밑에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고 김일성조선의 수호를 위하여 무궁도록 멀지실 천출명장의 변함없는 총대신념과 의지를 더욱 뜨겁게 절감하였다.

혁명이란 목적이 있어서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것이 라고, 인민들이 좋아하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색도 실천도 다 바쳐가시는 어버이장군님의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

민족통운의 2월, 선군조선의 창창한 앞날을 펼친 경사의 2월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위대한 인간, 위대한 혁명가만이 인민을 열화같이 사랑하는 고결한 감정을 지닐수 있다는 진리, 사랑의 화신을 명도자로 모신 내 조국의 미래는 영원히 밝고 창창하다는 신념을 더더욱 굳게 새겨주고있다.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자주성을 꽃피워주는 비옥한 토양이라는 정치리념을

온 나라 가정의 어버이 이민취천의 뜻 꽃피우시는 길에서

백두광명성 찬란히 솟아오른 영광과 환희의 2월은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김일성민족의 휘황한 태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 천출위인일 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사회주의 대가정의 위대한 어버이로 모시어 이 땅위에 주체의 강성대국이 반드시 일어설것이라는 확신을 끝없이 안겨주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끝없이 변형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그 품속에서 더욱 보람차고 행복찬 삶을 누릴 우리 인민의 모습을 그리며 그 어떤 난관도 달게 여기며 일하고있습니다.》

인민의 가장 큰 행복은 사랑의 화신,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를 명도자로 모시는것이다.

얼마전 대한의 뱀한 추위를 무릅쓰고 오랜 시간에 걸쳐 평양민가루가공장과 봉성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던 따뜻한 시로품들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공급할데 대한 은성어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열정적 애민정신을 우리로써 나는 세상에 우리 장군님처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명도자가 어디에 달아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 평양방직공장에도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어버이장군님의 거룩한 사랑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다.

자들을 한몸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건도 찍어주시는 그이시이다.

그러면 무더운 날 공장을 찾오시어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장을 찾아주시실 어이 없었으랴.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 땀으로 옷을 적시시며 공장을 찾으시신 경애하는 그이를 몸가까이 뉘음은 순간 우리들은 솟구치는 격정의 눈물로 하여 진정할수가 없었다.

추억깊은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방직종합직장, 편직사직장, 염색종합직장을 비롯한 로동자들의 우수한 일터와 갖가지 나무들로 숲을 이루 구내를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추진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장앞에 나서는 파업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웃감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무정신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고, 모든 로동자들이 자기 웃감을 짜는 심정으로 천생산에 지체와 열정을 장그러 바쳐야 한다고 강조하시던 어버이 장군님의 자애에 넘치신 음성이 지금도 온 공정구내에 메아리치고있습니다.

자신의 모이는 고스란히 마음속에 묻어두시고 여성들이 많은 우리 공장이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에서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그토록 기뻐하시며 거들 치러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떠나실 때는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우리 일군들과 로력적인

이 결려있는 곳에 이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전담꽃무늬비옷의 팔을 살펴주시고 비옷겨드랑이부분을 들여보셨다.

잠시 생각해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거드랑이부분에 공기구멍을 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때야 바깥이 잘 통하여 건강에

이 결려있는 곳에 이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전담꽃무늬비옷의 팔을 살펴주시고 비옷겨드랑이부분을 들여보셨다.

잠시 생각해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거드랑이부분에 공기구멍을 내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때야 바깥이 잘 통하여 건강에

도 좋고 오래 간다고, 공기구멍을 때우려 열을 주면서 압박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을것이라고는 정당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우리 인민들의 편에 맞게 만들어도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인민적품모는 정녕 얼마나 고결한 것인가.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선 더 좋은 설비를 들여오든다 어린이들에게 더 맛있는 콩우유를 먹이려고 뜨겁게 달궂히는것이였다.

여러 직장에 들리시어 어린이 시료생산량도 몸소 알아보시고 공장에서 생산한 것본품을 보시면서 포장문제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떠나시기에 앞서 원자계공급제를 정연하게 세워주시고 필요한 물건까지도 해결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던 어버이장군님.

그이의 인자하신 모습을 우리들은 일군들의 심장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

—참으로 우리 장군님의 저들을 위하여파라시는 천출명장이신뿐 아니라 내 조국의 미래를 로서 아직 새겨나 다름없어 어버이시이다.

본사기자 김 동 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클름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 마 힌 다 라 자 팍 사 각 하

나는 당신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기된데 대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 99 (2010)년 1월 28일 평 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빨스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에드와

성 부상과 빨스까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평안북도현지지도 10돛 기념 보고회가 1월 30일 신의주 시에서 진행되였다.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 이 경평해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제 89 (2000)년 1월 평안북도를 찾으시어 도의 전반사업을 일대 양상을 일으키기 위한 파업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신의주신발공장, 광책배이평공장, 신의주 방직공장 등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는데 대해서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고 근로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파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는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물론 나라 인민이 단합을 박하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힘차게 추구쳐오르게 한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도내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업적을 빛내며 지난 10년간 위대한 창조와 눈부신 번영을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락원기계연합기업소 현대적기술이 도입된 유압식굴삭기와 산소분리기 등을 만들고 많은 공장에서 CNC기술로 장비됨으로써 우리 나라가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라섰음을 파시하

는데 이바지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도내 경공업공장에서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된 결과 인민소비품생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기초소비품생산기지의 생산이 정상화되고있으며 많은 지방공업공장이 개건되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농업부문에서도 수만정보의 토지가 정리되고 백마—철산길이 완공된것을 비롯하여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도내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과 율해공동사실을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주공전선을 지켜선 공지높이 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친다

재령 별 안 의 농 장 들 에 서

세계공공사업과 김철로동계급의 전 투적소속이라 당장진 65畝를 농업생 산성과 빛내이기 위해 한결같이 떨 쳐나선 재령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 자들이 농사차비에서 날에날마다 새로

운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신진, 안악, 재령군의 일군들과 농 업근로자들은 한달동안에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흙갈이 등 농사차비에서 높 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거름생산성과

가 나날이 확대되어 전반적인 포전을 들 을 높이 들고 당면한 농사차비를 전투 적으로 하고있는 재령별 일군들과 농 업근로자들의 투쟁소식을 전한다. 현지도보판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라는 구호 를 높이 들고 당면한 농사차비를 전투 적으로 하고있는 재령별 일군들과 농 업근로자들의 투쟁소식을 전한다. 현지도보판

신천군 새 날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뜻처럼 위수준 하는 그는 이날 도 맨 처음으로 포전에 발자욱 을 찍었다. 그만이 아니었다. 온 가족 이 떨쳐나 생산한 거름을 듬뿍 내고있는 분조장 김철로 동무의 가정, 트랙토르의 만가등을 보장하여 낮과 밤을 모르고 거름실어주기실적을 올리고있는 트랙트르운전수들과 맨날 추위에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에 많은 량의 거름을 포전으로 실어낸 부림소관리 공 강성철동무...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대오를 이끌어

서해파랑 재령에서 들어온 소식이 사람들의 가슴을 격정 으로 끓게 하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한달동안에 수입한 100톤의 거름을 생산!

인을 손에 들고 찾아온 그들의 앞줄마데에는 새로운 신심이 넘쳐있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겠다고, 맑은 농장들에 대한 영농지도 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 이겠다고 흥분된 어조로 말하는 일군들을 바라보며 책임일 군은 목표를 더 높이 세울 결 심을 굳혔다.

수행하였고 명석, 우산협동농 장들에서는 며칠동안에 수천 t 의 질 좋은 거름을 포전들에 실 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전투적인 일본세가 어 제 신천군 일군들속에서만 발 휘된것이라.

첫해의 주인공들은 언제나 군일군들이었다. 날이 푸름푸 림 밝아올때이면 벌써 포전 에 나와 질 좋은 거름을 실어 내는 일군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국 협동농장, 경지협동농장을 비 롯한 그 어느 협동농장에 가 보아도 들을수 있었다.

전례없는 성과이다. 바로 여 기에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해인 올해전투작전을 잘하고있는 재령별안의 농장일 군들의 노력이 깃들여있다. 신진, 안악, 재령군의 그 어 디를 가보아도 새해공공사업과 김철로동계급이 보낸 편지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농사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는 일군들의 신심과 탁관에 넘 친 모습을 볼수 있다.

모든 포전들에 정보당 수 십 t 의 거름을 실어내는 문제, 유 기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군 유기질 복합비료공장능력확장 공사를 다그쳐 끝내는 문제를 비롯하여 일군들은 전투목표를 높이 세웠다. 편이 전투목표 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 도들도 다그쳤다.

벌써 군적으로 종자가 확보 되었으며 늘어난 두벌농사면적 에서 옹근소출을 내기 위한 준비 가 시작되었다. 군일군들이 화물자동차들에 질 좋은 거 림을 싣고 협동농장으로 향한 대오의 앞장에 섰다. 군안의 이 화물자동차들에 질 좋은 거 림을 싣고 협동농장으로 향한 대오의 앞장에 섰다. 군안의 이 화물자동차들에 질 좋은 거 림을 싣고 협동농장으로 향한 대오의 앞장에 섰다.

조곡의 대지가 더운 땀을 바 쳐야 중요한 가을을 안아올수 있다며 앞장에서 뛰는 군일군 들의 모습을 보며 농장일군들 은 대고조시대 일군은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다신 한 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 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두루 농장, 작업반, 세대들 에서 거름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우산리지구서 서 해복은 강령을 파내기 위한 대적이 세워졌다.

평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 며 수습일군에 트랙트르와 양수기수리를 전부 끝낼 목 표를 세우고 담당한 농장들에 달 러나간 일군들은 인신자적의 모험으로 대충을 이끌었다.

일군들의 전투적인 일본세로 하여 협동농에 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고오르고있다. 새해협동농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재령별의 어느 농장, 어느 포전에 가보나 격 정장을 방불케 하고있다.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될 어느 날 신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군의 방으로 여러명의 일군들이 들어섰다. 공공사업 이 실린 당보와 올해농사대책

신 병사를 의미하는 이 말이 경제성장전선의 여러 부문에서 열 마나 자랑스럽게 들려오는가. 기계화의 전초병, 첨단돌파의 전초병, 지하의 전초병...

말의 모든 뜻이 다 전선이였 다. 인민을, 내 나라를 제일로 사랑하시는 그이께서 계시는 곳은 언제나 예국의 최전선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 장군님

말의 모든 뜻이 다 전선이였 다. 인민을, 내 나라를 제일로 사랑하시는 그이께서 계시는 곳은 언제나 예국의 최전선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 장군님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일의 주인은 농민들이 며 농민들의 애국적신심과 로력적열정을 불러일으 켜야 농사를 잘 지을수 있 습니다.》

전초병에 대한 생각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이것이 최전군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풀썩대는 혁명적격고양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야 합니다.》

《농장원들의 심정은 하나로 고동쳤다. 이들은 지난해에 비 하여 더 높은 알곡생산목표를 세우고 기어이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펼쳤다. 농장일군들의 치밀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작업반마다에 흙보산비료생산기자들이 그 흔 하게 갖추어지고 우렁이식작과 복합비료생물비료생산기자들 설비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 다.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뿐만 아니라 농사차비전투로 들끓는 농장별 그 어디에서나 농장일 군들의 화신적격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농장별 그 어디에 가 나 가슴마다에 끓어번지는 총성의 열도를 최 대로 분출시켜 당장진 65畝를 길일성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일 한마 음으로 떨쳐나선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의 모습을 볼수 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현지 붉은기 날리는 전투장

안악군 덕성협동농장 제 9작업반에서

《3분조의 전투원들, 거름실 어내기에서 헌신 혁신!》 《2분조에서 오전까지 하루 계속 1.4배 물!》 《현장에서는 새해공공사업 의 전투적과업 완수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선 작업반원들이 거름실어내기전투를 힘있게 벌 리고있다.》 《주공전선의 한 전초를 지켜 선 전투원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래서 우 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거름 을 생산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우리는 주공전선의 담당자 들이다. 나라의 쌀독이 넘쳐나 야 장성대국건설이 앞당겨진다. 이렇듯 어떻게 하나 올해농사 를 잘 지어야 한다는 생각, 나 라의 쌀독을 가득가득 채우는것 으로 정해하는 장군님의 강성대 국건설수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야 한다는 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사차비를 다그치는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 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례없는 성과가 이루어지고있다.》

인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결의에 넘쳐

올해의 장엄한 진군길에 나선 보건성 일꾼들의 전투적기상과 열정은 대단히 높고 뜨겁다. 성일군들의 심장의 세한 고동은 인민생활향상으로 부른 당의 의도에 맞게 통이 크게 세운 올해전투목표와 그 실행을 위한 대담한 작전을 통해서도 뜨겁게 느껴진다.

필수약품생산에서 혁신, 중앙과 도인민병원들 사이에 수립된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시, 군인민병원들에 확대 도입, 모든 제약, 의료기구, 고려약공장 등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에 도달, 약품을 시, 군들에까지 전진공급...

인민들에게 기쁨을 줄수 있는 가슴편한 전투목표이다. 여기에서 시, 군인민병원들까지 실행할 및 기능진단정도 판리대책을 세우는 전투목표를 하나 놓고보아도 이것은 전국의 모든 시, 군인민병원에서 진행되는 실행검사과 기능진단성격이 똑같은 수치를 가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수도로부러 멀리 떨어진 산골에서도 중앙병원이나 도인민병원에서와 같은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하는 먼거리의료봉사의

실행을 과학적으로 담보할뿐 아니라 날로 높아가는 근로자들의 요구에 맞게 의료봉사의 질적수준을 보장하는 데서 의의가 큰 목표이다.

성에서 내세운 전투과업 하나하나가 다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올해공공사업과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에 심장으로 화답하여 내세운 목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꾼들의 어깨우에 대고조는 운명이 놓여있습니다. 일꾼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대중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하고 능숙하게 이끌어 나가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지휘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과 올해공공사업을 자자구구 새겨갈수록 성의 책임일꾼들의 심장은 대고조시대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각과 각오로 세차게 높여졌다.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인민적보건정책들이 인민들의 생활에 더 잘 이바지되게 올해의 전투목표를 통해 크게 세우자. 이런 맹세가 성일군들의 심장마다에 초석처럼 다져졌다. 보건성 당조직에서는 올해전투목표작성의 기초로 되는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과 올해공공사업실현을 위한 힘과 열정을 동원하여 올해전투목표가 현실성있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쏟았다. 특히 책임일꾼들이 여러 부처 일꾼들속에 들어가 벌리는 화신적직접사업과 최첨단보건시설을 참관하고 돌아와 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의식을 가지고 진행되는 해설담화는 성일군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누구나 드높은 결의와 심장의 불을 쬐었다. 또, 개별공공사업실현을 위한 계획과 나날이 바뀌어 가는 실정 속에서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공사업의 요구에 맞게 올해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기 위한 원바

람이 불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정도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올해 인민보건의 나아가야 할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일꾼들이란 몸마에 날개가 돌친 격이 되었다.

책임일꾼을 비롯하여 성의 모든 일꾼들속에서 경에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토론들이 심화되었고 의료일꾼들과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무릎을 마주한 격식없는 협의회들이 진행되었다. 의과학기술부문을 맡고있는 일꾼들은 해당 연구기관 과학자들에게 들어가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중요한 예방약의 개발이라는 전투목표를 확정하고 그 수행방도를 토론하였으며 제약공업부문을 맡은 일꾼들은 현한 수백여 건을 달려 제약공장의 기술자들과 약품원료생산에서 공장용 부를 생산공정의 현대화설계안을 완성해 가지고 돌아왔다.

예방부문과 치료부문, 약무

부문과 제약, 의료기구, 고려약생산부문을 맡은 일꾼들은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올해의 전투목표로 확정하고 그 수행방도를 찾는 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려왔다.

이렇게 현실속에 들어가 그 수행방도까지 찾아 세운 전투목표인것으로 하여 올해 인민보건의 성과는 확정적이다.

지금 당장진 65톤을 맞은 올해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인민보건의사업의 비약적인 성과로 빛내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선 보건성 일꾼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다.

보건성 일꾼들이 능숙한 정치활동가가 되어 인민보건의 새로운 진군기를 마련해가려는 은 나라 보건부 일꾼들의 정신력을 더욱 고조시키며 혁신적인 안목과 대담한 작전, 치밀하고도 완벽한 조직사업과 능숙한 전투투위로 올해의 전투목표수행에서 앞채를 매고 나갈 때 사회주의보건제도 만세 소리가 조국강산에 높이 울려 퍼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오 현

제14차 김정일화축전 선전화가 나왔다



제14차 김정일화축전 선전화가 나왔다

【평양 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열리는 제14차 김정일화축전 선전화가 나왔다.

선전화의 중심에는 활짝 피어난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거연히 솟은 정일봉을 배경으로 훌륭히 형성되어 있다.

웃부분에 《2.16경축》이라는 글자와 축전마크가, 아래부분에 《제14차 김정일화축전》이라는 글발이 있는 선전화에는 축전장소와 기간이 밝혀져 있다.

선전화는 당장진 65톤을 김일성민족의 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기 위한 총공세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조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만민의 열화같은 총정에 의해 성대히 진행될 불멸의 꽃처럼 분위기를 한층 돋구는데 기여할 것이다.

조선원산업대학은 물질기술적토대로 축성에 많은 성과를 이룩하여 올해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단위의 하나이다.

대학에는 과학연구활동과 교수사업, 교육원, 학생들의 생활향상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그뿐히 갖추어져 있다.

정보산업시대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꾸려진 원장실과 전자도서실, 외국어시각실, 수백마리의 풀락는집침을 육식시키는 축산기계를 비롯한 자체의 특산물 가공기계를...

수많은 컴퓨터들이 갖추어져 있는 전자도서관에 가면 정보봉사를 받으며 과학연구사업과 학과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하고있는 교원들과 학생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볼수 있다. 학부마다에는 전자도서실과 컴퓨터와 결합된 실비와 기구들이 잘 짜여진 실험실들이 그뿐히 꾸려져 교원, 학생들의 자질향상과 학과실력제고

에 큰 도움을 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대학의 질적수준은 학교의 물질적토대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습니다.》

몇 해전이었다. 《로동신문》을 통하여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김철로동계급대학을 찾으신다는 소식에 접한 리옥창, 엄정식동무를 비롯한 대학일꾼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첨단과학기술을 훌륭하게 일떠세운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시면서 한 번 경에하는 장군님의 면담을 가지시기를 자자구구 심장에 새겨가며 일꾼들은 자신들의 사업기공에 대하여 다시금

이 들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새로운 혁신이 없으면 남들이 이해하는 업적의 그늘에서 안식이나 찾으려는 제자들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 우리를 대고조시대의 참된 교원 혁명가들이라 하겠는가.

대학에서는 전자도서관건설을 비롯하여 발전하는 교육현장에 맞게 대학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다. 아직은 모든것이 어려운 조건에서 대학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는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심하고 달려붙였으나 부단적인 애로와 난관을 한두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대학일꾼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다. 앓은것을 하다가는

언제 가도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정보화의 높은 명마루에 올라설수 없다.

이런 확고부동한 신념을 안고 대학일꾼들은 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원만히 갖추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전자도서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도당위원회와 강연도승배전부, 당당도승배전부, 국 일꾼들도 전자도서관건설을 적극적으로 도와나섰다.

그러하여 대학에서는 불과 몇달만에 전자도서관을 높은 수준에서 꾸릴수 있었으며 전국 교육부 일꾼들의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 대학일꾼들과 교원들은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이든지 제정으로 할수 있다는

자각을 더욱 굳혔수 있었다. 물질기술적토대로 모든 교직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자체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축성, 이것은 교육의 질제고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게 하는 원천으로 되었다.

교수경험발표회와 교수경연회를 비롯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된 발표회와 전시회들에서 대학이 높은 평가를 받은 사실, 《10월8일모범교수자, 학위학위소유자대렬이 짧은 기간에 급속히 늘어나 대학들의 학계의 주목을 끌고있는 사실은 그 대담적인 실례로 된다.

그러하여 교육현장이 그뿐히 꾸려지고 교원들의 자질과 학생들의 실력이 높아진 결과 학부장 윤병, 백경철학생을 비롯하여 교직원, 학생들을 드리는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가치있는 과학연구 성과들이 수없이 이룩되었다.

진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량심과 의리는 인간의 고유한 미덕이며 사람들의 자각이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추동하는 정신적힘의 원천이다.》

얼마전 본사로 학자풍의 낯모를 사람이 찾아왔다. 《저는 청진의학대학에서 교편을 잡고있는 강과재 주성준입니다. 사설이렇게 찾아왔다고 덧붙여 이야기하는것이요...》

그는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한 후 우리에게 손을 쥐고있던 종이장을 내보였다. 거기에는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처럼, 학위, 학위번호, 날짜 등이 백묵이 적혀져 있었다. 품을 들여가며 쓴것을 보니 그가 키운 제자들인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의 짐작은 맞지않았다.

《이들이 바로 청진의학대학에서 연구사업을 하고있는 주원익실장의 제자들입니다. 저

역시 그의 지도를 받으며 박사로서 성장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원익실장을 오메전에 최신세공기술을 대담하게 림상실현에 받아들여 학계의 관심을 받았을뿐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나라의 의학기술향상에 이바지하는 여러권의 의학도서를 집필한 의학계의 권위있는 학자이며 교육자라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다고 덧붙여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스승을 위하여 강추위의 천리길을 달려왔던 말인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는 수십년간 무르익혀온 박사학위논문과 총자와 기조연구자료도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어 성공의 빛을 보게 한 성실한 교육자입니다.》

은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제자들과 함께 실험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논문집필을 위한 문과도 자주 벌려준 학계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밤낮이 따로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백식을 준비하여 가져다주던 담담한 사 김주봉동무를 비롯한 의사, 간호원들의 뜨거운 진정을 대할 때마다 그는 눈물만 흘렸을 뿐 말을 잊지 못하였다.

이런 훌륭한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이만큼 바치려하였다. 그때부터 너는 더 역세게 일하였다.

평시에 별로 말없이 있던 그는 병원에 입원하여 건강을 회복하면서 활찬이 되었다. 우리는 그 너씨의 병력서를 볼 때마다 웃었다.

이름은 김은향, 나이는 37살.

《모두가 다른 꼴의 동무들에게 양보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질책하려던 일꾼들은 슬며시 들어서며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고마운 동무들인가.

자라는 평범한 로동자의 안해였다. 뜻밖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던 그는 의식을

농업과학을 높이 연구성과를 추동할 데

농업과학의 일꾼들과 과학자들이 올해의 총공세를 기세 높여 나가고있다.

《당장진 65톤을 맞은 올해에 다시한번 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라는 올해공공사업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농업전선의 승리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해나갈 확고부동한 신념과 결사의 의지가 농업과학연구기지에 차민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업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시로서를 높이 발휘하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의 하나인 농업전선의 승리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해야 할 무렵고도 책임

적인 임무가 바로 우리 농업과학자들의 어깨우에 지워져 있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올해공공사업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농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농업과학원에서는 당장진 65톤이 되는 올해에 2012년까지의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된 중점대상과제들을 기본목표로 다그쳐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어느때같은 상상도 못할 목표이다.

그러나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려는 이들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하다.

농업과학원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리원시 미립형 동농장과 룡천군 신암형 동농장, 태천군 은호형 동농장,

의 일꾼들중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수실계의 단위들과 도입하여 농사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올해에도 농업부문 지도일꾼들과 합심하여 농업생산에서 기적적증진하도록 과학기술적으로 따져보기 위한 작전도 세워지고있다.

특히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다수확우량증진을 적극 높이며 영농방면과 영농기술을 혁신하여 현존조건에서 좋은 결실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선차적인 주력을 기울이고있다.

기상수문과국의 협동작업을 강화하여 올해 농작물생육에 보사입의 폭을 더욱 넓히고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신속있게 과학화하기 위한 작

전 계획을 다그치고있다.

농업과학부문에서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의 열풍도 세차게 일고있다.

지금까지 농업과학원에서 현시내 과학기술발전의 핵심 기초기술인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분야에서 특한 귀중한 성과를 농업과학원내에 일반화하기 위한 작전을 심화시키고있다.

특히 나노기술분야에서 이룩된 성과와 공로를 하면서 나노중자소공체, 나노합성 나노재료 등을 생산실현에 적극 도입일반화하기 위한 과학자들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식물에도 조직배양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에 기초하여 비낀은사과나무, 사과나무와 작물들을 널리 확대도입하며 생산성이 높고 특성이 좋은

감자품종을 얻어낼수 있는 첨단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한것을 비롯하여 생물공학분야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이 농업생산에 실제적으로 응용되고있다.

현재 농업과학원에서는 일꾼들의 적극적인 작전과 지원에 힘입어 농업생산에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며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10여개의 중점대상과제수행에 우수한 력량을 망라하였으며 후속적인 자기 사업을 진행해나가고있다.

과학기술로 농업전선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자! 신념을 든든히 지고 오 올해의 총공세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선 농업과학원 일꾼들과 과학자들의 혁명적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은 선군의 대지우에 오곡백과 실재하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라 명 희

뜨거운 정성을 바치며 서성구역인민병원 외과 의료일꾼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도입니다.》

환자의 어머니는 끝내 수술장에 들어갈수가 없었다. 서성구역인민병원 외과 정호철동무를 비롯한 당원의료 일꾼들이 피부이식수술을 도맡아나섰던 것이다. 그들속에는 60대에 이른 기술부인장 오형동무도 있었다. 이렇게 1차피부이식수술이 진행되었다. 2차피부이식수술은 그때로부터 열흘이 지나 외과의사, 간호원들로 조율하여 진행되었다.

원장, 초급당사서를 비롯한 병원의 일꾼들이 그들을 찾아와 섬세하게 외과 과장 류인학동무는 말하였다.

《모두가 다른 꼴의 동무들에게 양보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질책하려던 일꾼들은 슬며시 들어서며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고마운 동무들인가.

자라는 평범한 로동자의 안해였다. 뜻밖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던 그는 의식을

차린 후에야 자기를 위해 피부부를 서슴없이 떼낸 병원의 일꾼들과 의사, 간호원들의 소행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밤낮이 따로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백식을 준비하여 가져다주던 담담한 사 김주봉동무를 비롯한 의사, 간호원들의 뜨거운 진정을 대할 때마다 그는 눈물만 흘렸을 뿐 말을 잊지 못하였다.

이런 훌륭한 사회주의제도를 위해 이만큼 바치려하였다. 그때부터 너는 더 역세게 일하였다.

평시에 별로 말없이 있던 그는 병원에 입원하여 건강을 회복하면서 활찬이 되었다. 우리는 그 너씨의 병력서를 볼 때마다 웃었다.

이름은 김은향, 나이는 37살.

《모두가 다른 꼴의 동무들에게 양보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질책하려던 일꾼들은 슬며시 들어서며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고마운 동무들인가.

자라는 평범한 로동자의 안해였다. 뜻밖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던 그는 의식을

농업생물학 연구소에서

농업생물학 연구소에서

농업생물학 연구소의 일꾼들은 과학자들속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명한 투쟁속에서 과학자들의 본분을 다해나가기로 조직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우선 여러가지 작물의 모생산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면서 이미 거둔 연구성과를 현실에 확대도입하는 사업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소장 강진호, 김덕용동무를 비롯한 일꾼들과 과학자들은 첨단기술로 병에 견딜성이 강한 감자 새 품종을 육성하는데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어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해당 단위에서 고기와 알삼을 부패를 막아주는 새 품종을 연구하고있다. 이는 매우 이바지할 작전을 펼치고있다.

연구소에서는 여러가지 작물을 조직배양의 방법으로 대량증식할수 있는 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통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과학자들은 키낫은사과나무 접그루의 증식과 순화효율을 높이고 무리수마늘의 증식과 체중제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작물의 조직배양증식체계를 빠른 기일만에 확립하고 확대도입할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연구사업에도 상당한 주력을 기울이고있다.

과학자들은 벼와 강병이, 유제에 대한 형질전환연구와 분자표지자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한편 조직배양실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고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내밀어 야외기상상태와 온실내 부가상 및 영양관리상태를 실시간으로 자동관측하고 기록하며 송사카메라에 의한 실내부감시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오 현

농업생물학 연구소에서

농업생물학 연구소의 일꾼들은 과학자들속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명한 투쟁속에서 과학자들의 본분을 다해나가기로 조직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우선 여러가지 작물의 모생산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면서 이미 거둔 연구성과를 현실에 확대도입하는 사업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소장 강진호, 김덕용동무를 비롯한 일꾼들과 과학자들은 첨단기술로 병에 견딜성이 강한 감자 새 품종을 육성하는데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농업생물학 연구소에서

농업생물학 연구소의 일꾼들은 과학자들속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명한 투쟁속에서 과학자들의 본분을 다해나가기로 조직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우선 여러가지 작물의 모생산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면서 이미 거둔 연구성과를 현실에 확대도입하는 사업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소장 강진호, 김덕용동무를 비롯한 일꾼들과 과학자들은 첨단기술로 병에 견딜성이 강한 감자 새 품종을 육성하는데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농업생물학 연구소에서

농업생물학 연구소의 일꾼들은 과학자들속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명한 투쟁속에서 과학자들의 본분을 다해나가기로 조직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우선 여러가지 작물의 모생산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면서 이미 거둔 연구성과를 현실에 확대도입하는 사업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소장 강진호, 김덕용동무를 비롯한 일꾼들과 과학자들은 첨단기술로 병에 견딜성이 강한 감자 새 품종을 육성하는데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농업생물학 연구소에서

농업생물학 연구소의 일꾼들은 과학자들속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명한 투쟁속에서 과학자들의 본분을 다해나가기로 조직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우선 여러가지 작물의 모생산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면서 이미 거둔 연구성과를 현실에 확대도입하는 사업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소장 강진호, 김덕용동무를 비롯한 일꾼들과 과학자들은 첨단기술로 병에 견딜성이 강한 감자 새 품종을 육성하는데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농업생물학 연구소에서

농업생물학 연구소의 일꾼들은 과학자들속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명한 투쟁속에서 과학자들의 본분을 다해나가기로 조직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우선 여러가지 작물의 모생산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면서 이미 거둔 연구성과를 현실에 확대도입하는 사업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소장 강진호, 김덕용동무를 비롯한 일꾼들과 과학자들은 첨단기술로 병에 견딜성이 강한 감자 새 품종을 육성하는데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

2월 중 지자기 현상

2월 중 지자기 현상

2월에 지구물리적으로 3일, 5일, 8일, 13일, 17일, 18일, 22일, 28일, 29일, 30일 등 21일이 해당된다.

본사기자

2월 중 지자기 현상

2월에 지구물리적으로 3일, 5일, 8일, 13일, 17일, 18일, 22일, 28일, 29일, 30일 등 21일이 해당된다.

본사기자

2월 중 지자기 현상

2월에 지구물리적으로 3일, 5일, 8일, 13일, 17일, 18일, 22일, 28일, 29일, 30일 등 21일이 해당된다.

본사기자

2월 중 지자기 현상

2월에 지구물리적으로 3일, 5일, 8일, 13일, 17일, 18일, 22일, 28일, 29일, 30일 등 21일이 해당된다.

본사기자

2월 중 지자기 현상

2월에 지구물리적으로 3일, 5일, 8일, 13일, 17일, 18일, 22일, 28일, 29일, 30일 등 21일이 해당된다.

본사기자

2월 중 지자기 현상

2월에 지구물리적으로 3일, 5일, 8일, 13일, 17일, 18일, 22일, 28일, 29일, 30일 등 21일이 해당된다.

본사기자

2월 중 지자기 현상

2월에 지구물리적으로 3일, 5일, 8일, 13일, 17일, 18일, 22일, 28일, 29일, 30일 등 21일이 해당된다.

본사기자

